자승 대종사 1주기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11월 17일 봉은사서 다례재 봉행
진우 스님 등 1000여 명 한자리에
'한국불교 중흥' 유지 계승 다짐
생전 발언·법문 묶은 서적 봉정식
학생 108명에 상월장학금 전달식도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 회주로 수행전법의 가치를 대중에 전하다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1주기 다례재가 거행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1월 17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 1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해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전법 원력을 계승·구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자승 대종사가 생전에 남긴 글을 간추린 서적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을 대종사의 영전에 올리는 봉정식도 진행됐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은 자승 대종사가 총무원장 재직 시절 남긴 1000여 개 글 중 대종사가 직접 간추린 115개 글로 구성됐다. 또한 대종사가 2022년 봄부터 2023년 봄까지 간추린 글 115개에 직접 첨언해 완성했다. 2023년 여름까지 마지막 교정과 감수를 마친 자승 대종사는 출간을 보지 못하고 입적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는 유위세계의 연기적 흐름에서 이(理)와 사(事)를 아우르며 한국불교와 조계종이라는 집단의 향배에 선연이라는 바라밀행 수행으로 승화시켰다"면서 "현상이라는 분별세계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으로 결정지어나가며 진여(眞如)라는 참수행의 끈을 늘 놓지 않았다"고 자승 대종사의 행적을 되새겼다.

이어 '수행의 해봉에 한점 구름 되시어, 금강의 전법으로 만리에 향기 전하시네(修行海峯一點雲. 金剛傳法萬里香)'라는 시를 읊으며 "후학들은 자승 대종사가 남긴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실천 수행의 가르침을 사명이자 책무로 받아들여 길이길이 지남(指南)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1주기 다례재에서는 저서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 봉정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을 영전에 봉정하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자승 대종사는 말씀을 적게 하셨지만 그 말마다 낙처(落處)가 있어 경종을 울렸다"면서 "대종사의 원적 1주기를 맞아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자승 대종사는 한 곳에 계시더라도 늘 대한민국과 세계평화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으셨다"며 "늘 바른길을 일러주던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한국불교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도들의 노력으로 종단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추모했다.

자승 대종사의 재적 사찰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대종사의 뜻을 더 멀고 높이 꽃 피우는 것이 할 일이라 생각해 그 방법을 늘 연구하고 있다"며 "한국불교 발전과 부처님 법 전하는 데 힘이 되도록 문도스님들과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은 "아직도 대종사의 원적이 믿기지 않고 가슴이 먹먹하지만, 대종사가 남긴 은혜와 따듯함은 아직도 남아 우리에게 길을 일러준다"며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례재를 주관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자승 대종사 원적 2주기에 대종사의 부도탑을 완성하고 경내에 조성할 계획임을 전했다. 원명 스님은 "생전 자승 대종사가 몸소 보여준 한국불교를 위한 원력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주호영·정청래·김병주 국회의원들은 자승 대종사 생전에 함께 했던 인연을 밝히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좌표 삼아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자승 대종사는 담대하고 능수능란한 모습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하셨다"면서 "그 자세를 이어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랜 시간 한국불교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새기고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에서는 상월결사 정신을 실천하며 대학생 전법에 귀감이 되는 108명의 학생들에게 '상월장학금'이 수여됐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36명으로 이뤄진 3개 조의 대표 학생들에게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자승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을 현 시대 한국불교의 과제로 삼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기치 아래 사부대중의 발심과 정진을 당부했다"고 말하며 자승 대종사의 1주기에 참석한 사부대중에 감사를 전했다.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 록경 정사

"종단과 교화 발전 앞장" 소감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 현 통리원 총무부장 록경 정사(총지사 주교, 사진)가 선출됐다. 임기는 12월 27일부터 3년이다.

불교총지종은 11월 19일 통리원에서 제170차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를 열고 새 통리원장에 록경 정사를 선출했다. 불교총지종이 통리원장을 지명하면 종의회에서 인준 절차를 걸쳐 선출된다.

선출 직후 록경 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종조님께서 열어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종단과 교화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종령 예하를 비롯한 우리 스승님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따르며, 총지종이 더욱 번창하는 종단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출가 장려 위해 성과 내는 곳 지원을"

출가장려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군종병 연수서 출가자 4명 배출
종립학교 '선연'서 출가 이어져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위원장 혜일 스님)는 11월 1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출가장려 사업별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와 사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양한 사업들 중 실제 출가수행자를 배출한 사례가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군종특별교구는 5월 10~13일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진행한 군종병연수교육 '슬기로운 출가생활'에서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군종병 연구교육 이후 제대한 총 4명의 용사가 출가를 결심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수의 병사가 해당 부대 법사에게 출가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이어지기도 했다.

군종특별교구 측은 "참여한 군종병 대부분이 후임에게 군종특별교구에서 진행한 군종병 연수교육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일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기간을 늘려달라,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정례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종특별교구는 2025년 5월에도 군종병 100명을 대상으로 모범군종병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립학교 출가종책인 '선연(善緣)'도 관심을 모았다. '선연'은 불교핵심인재계발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전국 불교종립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교교육과 체험을 통해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찰 순례 등을 통한 불교교육과 명상, 문화 활동 등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동대부고와 참좋은이서고, 광동고, 청담고 등에서 9명이 소년출가를 희망하고 있다.

권진영 동국대부속영석고 교법사는 "많은 참가 학생들이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을 희망하거나 군승 내지 군종병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소년출가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향후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더욱 다양화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불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불교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3기를 준비 중인 봉녕사 '단기출가학교', 해인사 '청년객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출가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낸 단기출가학교를 권역별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면서 "별도를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중 선정, 출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회의에 앞서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 포교분과위원장 가섭 스님,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돈각 스님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은호 기자

대종사·명사 법계 심의건 만장일치 통과

11월 20일, 제77차 회의서 통과
정부에 대한체육회 입장 전달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가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하고 대상자 전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는 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제77차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환성 스님·혜강 스님(직할교구) 등 27명이 대종사 법계를 받는다. 선광 스님(월정사) 등 6명은 명사 법계 품수를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은 불기2568년 갑진년 한해를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불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바쁘게 보냈다"면서 "국민 마음평안을 위한 선명상의 활성화,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공감,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포교 활동을 펼쳐왔고 불자뿐 아니라 세대와 국적을 불문한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근하고 포용력 있는 K-선불교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개회사에서 "눈코 뜰 사이 없이 불철주야 업무를 수행 중인 총무원장 스님의 모습에 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 11월 8일 원적한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 대종사를 추모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76차 원로회의에서 새롭게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돈명 스님과 종우 스님, 종열 스님은 의원 선서를 통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원로회의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삼보 전에 서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체육회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기타안건에서 논의, 원로회의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민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

- 세상과 나의 평화를 위한 실천 -

'하루 5분 선명상'과 함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선명상 공식 어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 선명상'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 '선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선명상 홈페이지
선명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선명상TV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에 '선명상TV'를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선명상 콘텐츠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어플에서 매일 5분 명상체험 스탬프를 80% 이상 하시는 경우 매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드립니다.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02-737-0862

